

병사들을 행복의 창조자로 키운 거룩한 손길

위대한 선군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총대로 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무적의 강군인뿐만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찬란한 미래를 담당해가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지난날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던 외진 산골마을에까지 찾아오시어 당포사업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주르르며 당포사업위원들을 눈곱을 적시었다.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바친 우리 군인들의 고귀한 땀방울들이 얼마나 뜨겁게 스며들어있는 것인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아! 이란 불굴의 정신을 안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앞장에서 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군인들의 머없이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들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우리 인민군대 사람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어찌와 가슴은 고향이 생각나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확고히 입증됩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앞장에 섰으며 로력적외력을 떨치고 빛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의 재부를 쌓아내고 행복의 만리길을 열어놓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안겨오신다.

청류다리 제2단계공사를 발기하시고 인민군대에 맡겨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신이,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청류다리 제2단계공사를 당장건 50캐까지 완공하는것은 우리의 령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파시하는것으로 빛날입니다. 나는 인민군대가 《당히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혁명적주요를 높이 들고 청류다리 제2단계공사를 당장건 50캐까지 무조건 완공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펼쳐리라고 믿습니다. ... 바야흐로 온 세계를 진감시릴 건설

작전은 이렇게 펼쳐졌다. 그로부터 얼마후 힘있게 울려 퍼진 최고사령관 명령은 또 얼마나 세사사람들을 놀래쳤던가.

조선인민 최 고사령관 명령 제 0051호 《평양시에 청류다리 (2단계)와 금류2동굴을 건설할대 대하여!》

역사에는 수많은 군사평판들의 명령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은 의례히 군사적성격을 띤 명령들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내리신 이 명령은 인민들을 위한 평화적건설공사를 군대가 맡아 수행할대 대한 것이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모한 군사적위협과 전쟁행위로 전쟁의 불기름이 향시치고 무겁게 드리우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던 그 시기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에 돌리라는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대용단이었다.

위대한 선군명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의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위업의 주력군으로, 선군정치의 기수,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농업전선으로 바래내시어, 발전적건설과 도로건설을 비롯한 경제건설의 어렵고 긴요한 주요업선들에 용감 파견하시어 군인들이 앞장에서 주 몸업한 난국을 타개해나가기도록 하신수 있었나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관철될수록 우리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영웅적투쟁을 벌여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과 현대적인 공장들을 일떠 세웠으며 인민경제의 어렵고 중요한 한 부분을 맡아 돌라구름 열어놓았다.

1990년대 조신의 기적으로 알려진 안변청년발전소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혁명적순진정신으로 화답하여나선 우리 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기념비적 창조물이다.

그처럼 거창한 대자연적공사들을 놓고 적들은 《총이장우의 발전소》라고 떠벌리며서 갖은 비방증상을 다하였다. 그러나 발전소건설을 맡겨주시고 친부모도 따를수 없는 은쟁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군인건설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불굴의 기상을 안고 공사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담성,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물결굴을 뚫은 군인건설자들, 총과 총이 맞부딪치고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조국보위호주축만이 전선이 아니었다.

청춘도 생애도 아낌없이 바쳐가며 우리의 군인들이 창조와 건설의 《백병전》을 벌인 건설장은 그대로 《2건설》, 조국건설의 최전선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발전소건설을 발기하신 뜻깊은 기념일에 건설장을 찾오시고 힘찬 물결굴에 들어가서 애로사항을 사색하시고, 밤낮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현실로 목격하시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편이 강대국과 성정을 불화, 라단을 봉화로 온 나라를 뚫어내거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전력적인 정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날에 진행하신 안변청년발전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혁명적순진정신이 온 나라에 나뉠체한 한 중요한 계기였다. 혁명적순진정신!

크고작은 발전소건설과 도로공사장, 토지정리전투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는 그 어디서나 우리의 군인들은 매일, 매 시각이 위대한 정신으로 무장되는데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냈고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적외연을 창조하였다.

인민의 휴양지로 훌륭하게 꾸려진 구월산승경지와 더불어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도도말마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가. 주제 86 (1997)년 9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번째로 구월산을 찾오시었을 때였다.

인민군인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해놓은 성과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보위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군인들이 구월산유원지를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훌륭히 꾸림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유힬을 빛나게 실현

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선물을 안겨주게 되였다고 못내 탄복 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군인들이 세진 《미배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는 글발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로 이 글에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군인들의 참된 인생관과 혁명적정신의 세계가 그대로 비쳐있었다. 혁명적정신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보다 위화찬란한 미배를 그러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어제 안변청년발전소와 구월산유원지뿐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야애 이르는 곳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솟아 올랐고 온 나라 전역 인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산악같이 일어섰던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편이 강대국과 성정을 불화, 라단을 봉화로 온 나라를 뚫어내거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전력적인 정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되는데 맞는 후반기에도 손색없을 현대적인 본보기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우리 인민군대를 내세우시었다.

인민들에게 맞춤형 기초식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리라 늘 마음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도 인민군대에서 먼저 본보기로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이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물소현지에 나가시어 공장의 운영정황과 제품의 맛과 가격을 보시며 전국의 일꾼들이 다와보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각도에 현대적인 기초식품 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된 메기공장,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들 그리고 타조목장, 대동강꿍꿍공장, 김원공명정정양을약대학, 대동강타일공창,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과 전자도서관, 냉원발전소, 새로 개건된 모란

봉극장이며 대동문영화관, 평양대극장, 개선청년공원...

참으로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경제건설의 돌라구름을 얼어제기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를 전진시키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한 원동력이였다.

혁명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이 세상 그 어느 군대도 가져볼수 없었던 이런 긍지높은 정호를 지니고 오늘도 우리의 군인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장에서 창조와 위훈을 높이 떨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첨속도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할 최첨발전소들의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공사장마다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 평양민속공연건설장 등 곳곳마다에서 천년을 책일지도 모를 일을 보충하는 구호를 소리높이 외치고있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피땀을 흘린 장소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 또한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 것인가.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있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 정녕 그것은 회세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승화한 애국의 기상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가시는 백두산혁명군인의 최고사령관이실뿐 아니라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시는 창조와 진리의 영예이시이다.

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 군인들은 무조건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신 선군정치가 오고 혁명적순진정신으로 창조된 기념비를 높이 쌓아가는 영웅적인인민군대가 있어 내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백영 III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있는 찬란한 인민의 가슴속에는 해방후 외진 두메산골에는 찾아오시어 당포사업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주르르며 당포사업위원들을 눈곱을 적시었다.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바친 우리 군인들의 고귀한 땀방울들이 얼마나 뜨겁게 스며들어있는 것인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아! 이란 불굴의 정신을 안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앞장에서 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군인들의 머없이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들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우리 인민군대 사람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어찌와 가슴은 고향이 생각나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확고히 입증됩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앞장에 섰으며 로력적외력을 떨치고 빛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의 재부를 쌓아내고 행복의 만리길을 열어놓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안겨오신다.

청류다리 제2단계공사를 발기하시고 인민군대에 맡겨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신이,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청류다리 제2단계공사를 당장건 50캐까지 완공하는것은 우리의 령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파시하는것으로 빛날입니다. 나는 인민군대가 《당히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혁명적주요를 높이 들고 청류다리 제2단계공사를 당장건 50캐까지 무조건 완공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펼쳐리라고 믿습니다. ... 바야흐로 온 세계를 진감시릴 건설

그러시고는 당시 이곳 당포사업위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포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지난날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던 외진 산골마을에까지 찾아오시어 당포사업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주르르며 당포사업위원들을 눈곱을 적시었다.

바로 이러한 때 이곳 일군들과 농민들이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왔다. 그들과 다정한 농사를 나누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여기에는 산나물과 산열매, 약초도 많은데 그것들을 거두어들여 수매하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될수 있다고 하시며 풀먹는집집으로 많이 기르고 꿀벌도 키우고 콩나무를 심어잡입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런 산골에서도 흰쌀밥을 먹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이 고장은 아주 좋은 곳이라고, 앞으로 이곳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러 후손들이 대대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외진 산골마을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과 농민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경경으로 설레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크나큰 흥분으로 설레이는 일군들과 농민들을 둘러보시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만 앞으로는 벌방사람들이나 산골사람들이나 다 같이 잘살게 된다. 그러자면 당포사업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모든 사람에게 손을 댈어야 한다고 하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당포사업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 때 인민들이 잘 살게 된다는 아버지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강성대국 건설에 펼쳐나간 찬란한 투쟁을 오늘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림 정 호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있는 참가자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라 필승의 신념과 락판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고의 열풍을 세치게 일으켜 나가고있다. 10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복성을 뿜던 그 열정, 그 기백으로 계속현신, 계속진전해나가는 이 장엄한 모습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하며 행복의 새 생활을 꽃피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습니다.》

혁명은 인민의 최대의 긍지와 자부심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는데 있다.

나라와 민족, 혁명의 전도는 령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존엄강화와 일심단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적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던 작은 나라도 강대국으로, 세인이 자랑하는 강국이 되는 영웅적인 나라는 존엄전진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삼배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 령도밑에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주체혁명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열어놓으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진기를 펼쳐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명도와 영예가 힘있게 펼쳐지게 되었다.

특히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펼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불변의 신념과 의지

올해 정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나운 강추위를 헤치시며 조선인민군대 위 서늘투쟁주제 105강군 사단관학 구분대를 찾오시었다.

구분대의 여리품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 마음으로 보살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이 진행하는 훈련도 보아주시었다. 그날 선군조선의 떨쳐의 기상이던가 용용하게 도드러지는 무의철타개도를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하늘을 진감하는 우뢰소리 마냥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땅

크발돋소리며 혼련장을 반개같이 내달리는 후취개마들의 강력한 포화력...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용맹한 훈련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당코병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방백의 용사들로 자라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고귀한 가르치심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에서 운영되고있는 농장을 며 농장에서 당의 두베농사

농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로 신피하고 따르며 장군님의 품에서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철통같이 뭉쳐 붙은 불변의 사상으로 내세우시고 불변불휴의 사상리론화동으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민적이며 체계적 전민적으로 집행하신분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이다.

사상과 리론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될 때에만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변천되는 우리의 혁명의 환경과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총대종시사상, 군사사상으로 늘 출신의 길로, 기조로 하여 우리 혁명의 지도적지침인 위대한 선군혁명론을 내놓으신것은 자주시대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를 가지는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새로운 정치방식이 탄생하게 되었고 혁명의 주력군문제와 사회주의경제건설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힘있게 추동하는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의 발흥공화책들이 극도에 달하였던 속에서도 으며없이 승승장구해올수 있었던은 바로 타월한 사상리론가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의 앞길을 완전히 밝혀주시였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며 백승을 펼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

그러시고 군인들이 조국보위 초소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무적의 철갑대우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세해벽두의 현지시찰.

그것은 강력한 총대로 대고진군의 승리를 안아오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기하신 선군혁명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포전을 돌아보시며 농장에서 당의 두베농사

농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로 신피하고 따르며 장군님의 품에서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철통같이 뭉쳐 붙은 불변의 사상으로 내세우시고 불변불휴의 사상리론화동으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민적이며 체계적 전민적으로 집행하신분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이다.

사상과 리론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될 때에만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변천되는 우리의 혁명의 환경과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총대종시사상, 군사사상으로 늘 출신의 길로, 기조로 하여 우리 혁명의 지도적지침인 위대한 선군혁명론을 내놓으신것은 자주시대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를 가지는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새로운 정치방식이 탄생하게 되었고 혁명의 주력군문제와 사회주의경제건설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힘있게 추동하는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의 발흥공화책들이 극도에 달하였던 속에서도 으며없이 승승장구해올수 있었던은 바로 타월한 사상리론가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의 앞길을 완전히 밝혀주시였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며 백승을 펼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로해하시고 못내 탄복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사가 잘되어야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고 우리 나라를 모든것에 흥하고 전제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만들수 있다고 하시었다.

앞으로 당의 두베농사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선군시대 농업생산의 본보기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복받치는 경경을 금치 못하는

본사기자 김성남

의 오랜 리상과 념원이 실현되는 긍지높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순간의 휴식도 없애 하루를 백날, 천날맛이지 않없는 현실의 길은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인민위력을 좌우하며 삼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만 이 승승이수일수 있는 위대한 서사시적화투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대 우리 장군님보다 노래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이라 선군혁명의 찬란한 길로 뚫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좌우하며 삼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만 이 승승이수일수 있는 위대한 서사시적화투이다.

3월 5일청년관상과 창성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같이 혁명의 선봉에서 가장 존엄하고 아름다운 한사람의 발걸음을 상징하는 막둥이를 품안에서 안고있는 한사람이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정신이며 조국과 민족의 긍지와 영예를 떨치시는 사람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전두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오늘이려는 절세의 위인의 뜨거운 심장에서 타고나신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강행군에서 인민

김 병 진

